

바둑 ‘호남 天下’



김지석
(광주)



박정환
(광주)



이세돌
(신안)



이창호
(전주)



조현현
(목포)



김인
(강진)



조남철
(부안)

**박정환·김지석·이세돌 랭킹 1·2·3위
조남철·김인·조현현·이창호 적통 이어**

드라마 ‘미생’ 돌풍으로 프로 바둑기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글을 깨치기도 전 바둑 돌을 쥐기 시작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단 대회를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프로바둑 기사. 험난한 입단 과정을 뚫고 수拙(수拙·1단의 별칭)로 입문, 입신(入神·9단의 별칭)의 경지에 올라 국내는 물론 세계 바둑계를 호령하는 전라도 출신 20대 바둑기사들이 있다. 주인공은 김지석(26)과 박정환(22).

김지석과 박정환의 1위 다툼에는 ‘누가 1인자인가’라는 순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누가 한국 바둑의 적통을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한국 바둑을 일으켜 세운 대국수(大國手) 조남철(부안), 영원한 국수 김인(강진), 바둑황제 조현현(목포), 신산(神算)이라 불렀던 이창호(전주), 비금도가 남은 천재 기사 이세돌.

그간 국내 바둑의 적통은 전라도 출신 기사들이 이어왔다. 조남철-김인-조현현-이창호-이세돌로 이어지는 계보를 김지석과 박정환 둘 중 한 명이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석·박정환 두 기사는 모두 광주와 인연이 깊다. 김지석은 광주에서 태어나 오규철 9단에 사사 받은 뒤 서울로 올라가 국내 초일류 기사가 됐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광주일고 출신인 박정환은 출생은 서울로 알려졌지만, 광주가 낳은 초일류 기사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국내 랭킹 1, 2위에 오른 박정환, 김지석의 뒤에는 비금도 천재기사 이세돌(32)이 3위에 랭크돼 있다. 이세돌은 지난 9월 중국 구리 9단과의 십반기(十番碁)에서 우승, 상금 8억8000만 원을 챙긴 데 이어 지난 27일 ‘렛츠런파크배’ 초대 챔피언에 올라 한 시즌 최다 상금왕(14억 1000만 원)에 올랐다.

삼성화재배 우승 김지석 2014 MVP

사실 국내 바둑 팬들 사이에선 몇 해 전부터 김지석과 박정환 가운데 ‘누가 이세돌의 뒤를 이어 국내 1인자가 되나’ 하는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세돌은 일찍이 자신의 후계자로 김지석을 지목했다.

한·중·일 삼국을 호령해온 이세돌은 김지석을 가리켜 “나보다 더 공격력이 세다. 수 읽기도 더 빠르고 더 깊다”고 했다.

특히 내년 7월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롯한 백두산-판문점 성화 봉송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석의 삼성화재배 우승으로 세계 바둑 지형도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LG배 세계기왕전 결승에 김지석과 박정환이 올랐으니 6대 메이저 기전에서 한국은 2개의 타이틀을 확보한 셈이다.

중국으로 기울었던 세계 바둑의 무게 중심을 한국으로 끌고 온 일등공신은 단연 김지석이다. 김지석은 ‘축복받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아버지는 서울대를 나와 전남대 공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 어머니는 이화여대 출신의 약사로 알려졌다. 김지석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담양군에 종종 부인과 함께 들러 마을 어르신들과도 바둑도 두는 등 마음 씀씀이도 ‘프로’라는 칭찬이 전제되고 있다.

이세돌에게 후계자로 낙점되진 못했지만 엄연히 국내바둑 랭킹 1위는 박정환이다. 김지석과의 상대 전적도 4-14으로 압도적으로 앞선다.

1인 자에게는 전적이 없어야 한다. 전적이 있으면 1인자가 아니다. 국내 바둑 최강자, 전라도 바둑 기사의 적통, 나아가 한국 바둑의 적통 자리를 두고 두 기사 간 진검 승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LG배 결승전 이 그 출발점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팽목항에 저무는 갑오년

팽목항 방파제 뒤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팽목항에 어둠이 깔리면 거친 맹골수로에서 시작된 사나운 바람이 쓸새없이 몰아칩니다. 모든 걸 그대로 올려버릴 것 같은 차가운 바다. 칠혹보다 더 캄캄한 바다.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잠들어있는데도 새해는 찾아올 모양입니다. 단원고 학생 조은화·허다운 양,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탐승객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 이영숙씨. 2014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잊고 싶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명의 실종자와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어른들의 잘못을.

/진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 1월 남북회담 제의

정부 “상호 관심사 논의”…광주U대회 단일팀 청신호

정부가 내년 1월중 남북 당국자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공식 제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7월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롯한 백두산-판문점 성화 봉송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5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는 내년 1월 중에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면서 “북측에 전통문을 보냈으며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통문은 류길재 장관 명의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앞으로 이날 오전 발송됐고 북측은 이를

수령했다. 정부는 북측이 대화에 호응하면 류길재 장관이 회담 수석대표를 맡는다는 계획이다.

류 장관은 “이 만남을 통해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통준위 정부 부위원장인 저나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서울이나 평양 또는 기타 남북이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북측과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에서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간에 서로 관심 있는 사안들은 다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통준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대화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정규직 계약 4년까지 연장 추진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고,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이러한 정부안과 노사가 제시한 안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린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나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해진 안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Sulwhasoo

*유명백화점이나 약국에 방문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https://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